

EXiS 2017
Experimental
Film & Video Festival
in Seoul
&
in Suncheon

서울국제실험영화페스티벌
지역협력상영
예술공간돈키호테
프로그램

2017.8.3(thu) - 8.5(sat)



EXiS 2017
Experimental
Film & Video Festival
in Seoul
&
in Suncheon

서울국제실험영화페스티벌
지역협력상영
예술공간돈키호테
프로그램



국내 유일의 실험영화축제로 자리하고 있는 서울국제실험영화페스티벌(EXIS)이 올해로 14회를 맞이했다. 7월 13일 개막프로그램을 시작으로 7월 20일까지 서울의 시네마테크 KOFA(한국영상자료원)와 아트선재센터에서 열린다.

순천의 예술공간 돈키호테에서는 8월 3일부터 5일까지 총 3일간 일부 상영프로그램이 열린다. 순천 상영회에서는 국제경쟁, 인디비주얼, 아시아포럼, 회고전, 기획프로그램 가운데 9개 섹션의 프로그램만을 편성하여 총 25명 감독의 작품 30편이 상영된다.

올해 엑시스에 소개된 프로그램의 주요 특징에는 영화를 둘러싼 집요한 연구작업과 방법론이 돋보인다. 1904년부터 2015년 사이 제작된 영화속에서 기차의 도착장면을 모아 엮은 톰 앤더슨의 <기차의 도착>, 기존 영화사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영화감독 세르게이 에이젠슈타인의 동성애적 레퍼런스를 검토한 마크 라파포트의 <세르게이>, 중국 문화 대혁명 기간 동안 60편 이상의 영화에서 발췌한 디 후의 <엑스터시>, 미국 일리노이 주의 지역사를 11편의 우화를 통해 접근한 데보라 스트래트먼의 <일리노이의 우화>, 할리우드 블랙리스트에 관해 다년간 연구한 톰 앤더슨이 노엘 비치와 협업한 <레드 할리우드> 그리고 ‘필리핀 영화의 구세주’로 불린 켈소 아드벤토 카스티요가 1980년대 촬영한 미완의 35mm 필름을 복원해 재탄생시킨 존 토레스의 <피플파워 폭탄선언:베트남 장미의 일기>가 대표적이다. 이들 작품 중 <레드 할리우드>를 제외하고 순천 상영이 예정되어 있다.

그리고, 회고전 EX-Retro에 소개된 일본 독립영화 감독 카나이 카츠의 1970년작 <굿-바이 Good-bye>를 주목한다. <굿-바이>는 그의 ‘미소짓는 은하계 삼부작’ 중 두 번째 작품으로, 일본과 한국에서 촬영되었다. 이 작품이 제작된 1970년 당시 일본과 한국의 정치상황과 맞물려 다소 황당하고 독특한 로드 무비가 전개되는데, 1970년 한국의 다양한 공간들이 영화 배경에 노출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밖에 홍콩의 실험영화감독 린다 라이의 도시연구에 기반한 작품들, 아시아 포럼-대만 프로그램으로 기획된 “디지털 브레이크”(왕 윈-츠 큐레이팅), 베이징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중국의 실험영화감독이자 노이즈 음악가 샌디 덩의 2006년부터 2014년까지 변화되는 세 작품이 순천 상영을 기다리고 있다.

별도로, 지역협력상영관인 부산의 모퉁이극장에서는 7월 22일 토요일, 본상영에서 소개되지 않았던 샌프란시스코 시네마테크 연례 페스티벌 프로그램인 <크로스로드 CROSSROADS>의 일부 작품을 상영하고, 더불어 아티스틱 디렉터인 스티브 폴타가 방문해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부산 방문을 적극 권한다.

2017년 서울국제실험영화페스티벌(EXIS)의 프로그램을 기획한 무빙이미지포럼의 노고와 지역협력상영 관련 여러가지 도움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

순천과 인근 지역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관람이 있었으면 한다.

2017. 7.

예술공간 돈키호테

상영정보 : 2017년 8월 4일(금) 오후 3시 (95min)

세르게이 Sergei / Sir Gay

마크 라파포트 Mark Rappaport

France | 2016 | Color, B&W | Stereo | 35min 36sec | HD

우리시대 가장 영향력있고 위대한 영화감독인 세르게이 에이젠슈타인은 조형미술에도 빼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수천 장이 넘는 놀랄만한 드로잉 작품을 남겼고, 외부에 전혀 공개되지 않은 자신만의 즐거움을 위한 수 백여장의 동성애적 그림을 그렸다. 이 비디오 에세이에서는 에이젠슈타인의 영화 속에서 그간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동성애적 레퍼런스를 면밀히 검토한다.

마크 라파포트는 60년대와 70년대 초에 몇 편의 단편영화를 찍고 난 후에 70년대 5편의 장편 영화-«가벼운 관계»(1973), «모차르트의 사랑»(1975), «로컬컬러»(1977), «경치 좋은 길»(1978), «사기꾼»(1979)-를 찍었다. 그리고 1985년에는 «체인 레터스»를 찍었다. «경치 좋은 길»은 영국영화협회의 서덜랜드 상을 수상했다. 1990년대에 라파포트는 비디오 작업을 시작하여 «우편엽서»(1990), «록 허드슨의 홈무비»(1992), «야간 경관»(1993), «진 세버그의 일기에서»(1995), «실버 스크린/컬러 미 라벤더»(1997), «존 가필드»(2002)을 만들었다. 라파포트는 또한 20여년 간 소설가이자 영화평론가로도 활동하였다. 그는 또한 포토몽타주 작업을 하면서 뉴욕, 스페인, 로테르담, 낭트, 파리 등에서 전시를 하기도 하였다. 그는 현재 파리에서 살고 있다.



■ EX-NOW 1

상영정보 : 8월 4일(금) 오후 3시

기차의 도착 A Train Arrives at the Station

툼 앤더슨 Thom Anderson

USA | 2016 | Color, B&W | Stereo | 15min | HD

이 작품은 내게 선물과도 같았다. 난 어떤 주장이나 자질구레한 설명도 하지 않았다. «기차의 도착»은 나의 이전 작품인 «우리가 한때 가졌던 생각»(2015)에서 비롯되었는데, 당시 편집 과정에서 들어내면서 무척이나 후회했던 한 장면이 있었다. 그것은 오즈 야스지로의 «외아들»(1936)에서 동경역에 기차가 들어오는 장면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 이미지에 관한, 기차의 도착 장면을 모아 하나의 선집을 만들고자 결심했다. 영화는 1904년부터 2015년 사이 영화 속에서 기차가 등장하는 26개의 장면으로 구성된다. 작품은 단순한 연속 구조를 가지는데 처음 절반은 흑백 장면이고 나머지는 컬러 장면으로 이루어진다. 일본의 기차역에 기차가 도착하는 첫 장면과 마지막 장면은 로우 앵글로, «외아들»에서 가져온 첫 장면에서 기차는 오른쪽으로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는 왼쪽을 향한다. 고속 열차가 증기 기관차로 대체되고, 물론 이 두개의 장면은 최초의 기차에 관한 영화인 루미에르 형제의 «라 시오타 역에 도착하는 열차»(1895)를 떠올리게 한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물론 내 원래 의도는 아니었지만 난 또 다른 구조 영화를 만들게 되었다.

- 톼 앤더슨

툼 앤더슨은 영화감독이자, 비평가, 교수다. 현재 캘리포니아 예술대학에서 영화이론과 역사를 가르치고 있으며 뉴욕주립대와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강의를 하기도 했다. 60년대 초반 로스앤젤레스 필름포럼에서 프로그래머로 활동했으며 그의 작품은 밴쿠버 영화페스티벌에서 2003년 최고의 다큐멘터리 상을, 2004년 빌리지 보이스에서 그해의 다큐멘터리로 선정되기도 했다.



■ EX-NOW 1

상영정보 : 8월 4일(금) 오후 3시

엑스터시 Ecstasy

디 후 Di Hu

China | 2017 | Color, B&W | Stereo | 12min 44sec | HD



이렇게 고른 영화에서 찾아낸 음악, 언어, 시선, 몸짓과 상황에 의해 물리적으로 재현된 (루이 알튀세르가 말하는) 이데올로기적 호명의 순간을 집중적으로 연구했다. 이러한 요소들 중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언어’이기 때문에, 가급적 다른 외국어 자막을 넣지 않으려 했다. 영화의 최소 단위가 되는 장면을 가급적 원래의 길이로 유지하고자 했는데 이는 우리가 비판적 주제를 다룸에 있어서 장면이 가지고 있는 완전함을 유지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덕을 유지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엑스터시»는 특정한 즐거움이나 의미를 갖지는 않는다. 광범위한 장면들에서 가져온 다층적 상징과 의미가 이 영화에서는 서사를 대신한다. 여러 다른 영화의 음악들이 갖는 유사점, 빛나는 극적인 시선(크나큰 즐거움에 압도된 감정을 빨아들이는 듯한, 엑스터시란 제목은 여기에서 가져온 것이다.), 반복된 단어(마오 주석과 같은), 비인간적 몸짓(인물의 머리를 높여 돌아보는 등), 눈물을 흘리는 얼굴, 엑스터시의 전승 매체가 되는 상징적인 사물들(바늘, 스패너, 그리고 사과), 그리고 과장된 필름 기법들(클로즈업과 줌인)이 그러한 요소들이다. «엑스터시»는 연작의 첫 번째 작품이며, 특정 시기의 영화에 대한 재발견 일뿐만 아니라 영화를 통해 말하여지는 역사에 대한 성찰이기도 하다.

나는 내 스스로를 영화 예술가로 간주하지만, 내게 “영화”는 너무나 거대한 것이어서 스스로가 어떤 예술가인지에 대해 파악할 수 없게 만든다. 대신에 난 스스로를 “비디오 예술가”로 간주한다. 내 교육적 배경과 예술적 태도가 영화에서 비롯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비디오는 더 사적이고 영화보다 덜 지배적인 매체이다. 그것은 탐색하고 자기성찰의 도구인 연구 방법과도 같다. 나는 비토 아콘치의 단순 명료함이나 무한한 반복 뒤에 얻어지는 앤디 워홀의 숭고함 같은 것을 성취하고자 한다. 물론 하룬 파로키의 할리성은 내게 있어 도달 불가능한 예외적인 것이다. 이것이 비디오가 내게 가르쳐 준 것이다. 물론 영화는 내 언어이다. 난 영화의 렌즈를 통해 모든 것을 실행하고 사진이라는 매체로 작업을 한다. 그러면서도 내게 오직 단 하나의 이미지를 재현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데, 사진은 단 하나의 이미지를 표현한다. 나는 스틸 컷이든 영상이든 상관없이 영화가 그러하듯 이미지 사이의 의미 관계를 다루는데 흥미를 갖고 있다. 이때, 실재와의 연관성에서 영화로 기울게 되었다. 영화는 실재에 도달하는 나만의 방법이다. 작품들은 이미 실재 안에 존재하고 있으며, 작가의 작업은 그 작품들을 찾아내서 정직하게 제시하는 것이고, 이는 마치 마르셀 뒤샹이 레디-메이드를 찾아내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디 후는 1982년 중국 저장성에서 태어났으며 저장성 대학에서 중국 문학을 공부했다. 이후 프랑스에서 영화를 공부했다. 중국으로 돌아온 이후 프리랜서 영화평론가이자 영화연구자가 되었다. 그는 안제 에만고 하룬 파로키가 기획한 워크숍에 참가한 이후 2014년부터 단편영화를 만들기 시작했다. 이후 그가 만든 작품은 유럽을 중심으로 여러 페스티벌에 소개되었다

■ EX-NOW 1

상영정보 : 8월 4일(금) 오후 3시

카메라 위협 CAMERA THREAT

베른트 뢰첼러 Bernd Lützelar

Germany | 2017 | Color, B&W | Stereo | 29min | HD

자막도 없고 영상도 사운드도 잘 재생되지 않는 낡은 비디오테이프를 통해 인도 영화를 처음 접하게 되었다. 이후 인도 대중 영화에 드러난 시공간과 장르의 불일치성에 매료되었다. ‘맛살라 정칙’이라 알려진 일련의 서사적 형태는 하나의 이야기 구조 속에 여러 영화 장르를 한데 엮어, 논리성보다는 관객을 우선시한다. 사랑 혹은 가족 이야기는 액션 장면, 낭만적 노래, 우스꽝스러운 작은 에피소드, 멜로드라마 그리고 틀에 박힌 춤과 같은 것들에 의해 간섭받는다. 난 항상 이러한 거칠고 원시적인 하지만 흥미로운 영화 구조를 실험적으로 다루고 싶었다. 하지만 이 생각을 실현하기까지 15년의 시간이 걸렸다. 그러다 뭍바이 여행에서 수집한 많은 재료와 파운드 푸티지, 그리고 생각이 구체화되면서 맛살라에 대한 실험을 하기에 충분한 준비가 되었다. 모든 잡다한 필름과 비디오의 파편은 스크린 위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이전의 영화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16mm 또는 35mm 필름을 사용하며 뭍바이의 영화 현상소의 테크니션들과 함께 일했다. 그리고 지금, 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해 그들과 다시 일하기로 결심했지만 본격적으로 일에 착수하자마자 영화 현상소 대부분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곧 영원히 문을 닫을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더 심하게는 매일 사무실에 앉아 전화기만 바라보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다 한 곳과 함께 일을 시작하게 되었지만 사실상 내가 마지막 고객이나 다름없었다. 영화 산업의 전 세계적 디지털화는 마침내 뭍바이에 이르게 되었으며 난 그 사실을 내 영화의 개념의 일부로 받아들였다. 나는 이미 모든 종류의 아날로그와 디지털 포맷을 혼합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영화 서사의 혼종성에 대한 맛살라 실험으로까지 확장시켰다. 영화 상영에 있어서도 디지털과 35mm 영사기를 나란히 놓고 한데 상영하고, 결국 두 개의 빛의 원뿔은 스크린 위에서 하나가 된다. - 베른트 뢰첼러

베른트 뢰첼러는 1967년 뒤셀도르프 출생으로 베를린과 뭍바이를 오가며 활동하는 영화감독이자 예술가이다. 그는 무빙 이미지 제작 기술과 표현을 형태와 지각의 문제와 관련시키는 작품을 제작해 왔다. 짧은 영화 파편들, 파운드 푸티지, DIY 기술은 그의 영화에 있어 핵심이자 영화를 확장시키는 요소이다. 그의 뭍바이 여행은 종종 대중적 인도 영화와 텔레비전의 미학에 대한 그의 지난 관심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는 현재 예술가가 운영하는 필름 현상소인 라보베를린의 운영자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그의 작품은 쾰프두센터, 로테르담 영화제, 샌프란시스코 시네마테크, 뉴욕 필름 페스티벌 프로덕션, 베를린 필름 페스티벌 등 다양한 예술 공간과 영화제에서 소개되었다.



■ EX-NOW 3

2017년 8월 3일(목) 오후 3시 (77min)

하늘의 꽃 Flowers of the Sky

재니 가이저 Janie Geiser

USA | 2016 | B&W, Color | Stereo | 9min 12sec | HD

혜성을 뜻하는 중세 용어에서 따온 제목의 이 작품은 LA 중고품 가게에서 발견한 두 장의 파노라마 사진에서 시작되었다. 이 사진은 프리메이슨 소속 단체인 동방의 별단의 집회를 찍은 것이다. 첫 번째 사진은 만찬 사진으로 참가자들은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다. 두 번째 사진은 의식을 거행하는 장면을 찍은 것으로 모두가 예복을 입고 카메라가 아닌 무대를 바라보고 있다. 무대 위에는 한 사람이 서서 나머지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다. 모두가 다음 순간을 기대하면서 정지해 있다.

사진들의 여러 부분들을 보여주면서 이 작품은 원래의 행사를 드러내는 동시에 왜곡시킨다. 사진들을 보고 있으면 일상의 경험을 초월하는 무언가가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시선이 느껴진다. 그리고 그 무언가는 일어난다. 자연은 스스로를 다시 드러내고, 인물들은 이중으로 겹쳐 보이는 동시에 흔들리고 떠오르면서, 이별전에 비친 삶으로부터 탈출하려고 한다. 그리고 황홀감은 인쇄된 세계 너머로 확장되는 것 같다.

재니 가이저는 퍼포먼스, 영화, 설치작품과 시각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작가다. 그의 작품은 버려진 이미지와 사물들의 맥락을 되찾고, 인위성을 포용하면서, 정지된 시간에 대한 감각을 되살리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미국 아방가르드 인형극의 선구자 중 한 사람으로 그는 사물과 인형, 그리고 영사를 결합해 혁신적이고 최면적인 퍼포먼스와 설치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그녀의 작품은 워커아트센터, 레드캣 등에서 소개되었으며 뉴욕현대미술관, 캘리포니아 예술대학 등에 소장되었다. 지난 필름 코멘트가 선정한 10년 사이 제작된 10편의 실험영화에 선정된 «네 번째 시계 The Fourth Watch»(2000)는 아카데미 필름 아카이브 복원작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 EX-NOW 3

상영정보 : 8월 3일(목) 오후 3시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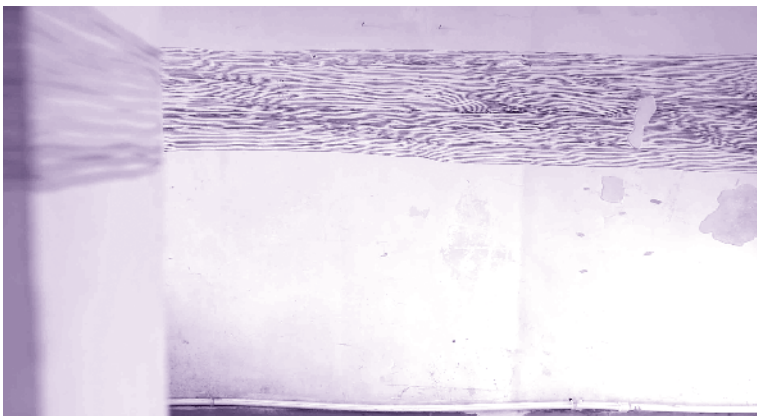
샤오 야오 Xiao Yao

China | 2016 | Color | Stereo | 7min | HD

우선 난 이 작품을 여성 영화로 범주화한다. 이를 통해 삶과 작품 그리고 두 세대 여성의 사랑의 차이를 통해 내 어머니와 건강하고 소통 가능한 관계를 구축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데올로기적 무게감의 증가와 여러 요소가 쌓여 나가면서 난 차이가 사실상 불가역적인 것임을 깨달았다. 대부분의 시간 동안 우리는 서로의 일에 치여 각자의 외로움을 무시했다. 어머니의 암은 극도의 부정적 에너지와 먼지투성이의 기억을 일깨웠고, 치료를 받는 동안 우리는 정신적 회복이 필요했다. 이런 상황이 이 작품을 만들게 된 시발점이다. 이 과정을 특별한 사건이나 해석으로 표현하거나 설명하기는 힘들다.

결국 난 내 작품을 “자화상”에 가까운 영화로 범주화 할 것이다. 이는 단순히 기억이나 회고가 아닌 내 스스로에 대한, 마음의 관찰이고 외부 신체를 열어젖히는 과정이며 자신과의 대화이다.

샤오 야오는 베이징 중앙미술학원을 졸업했다. «25»는 2017년 중국독립영화제에서 실험영화 부문 수상작이며, 그녀의 영상과 설치는 베이징의 여러 전시에 선보였다.



■ EX-NOW 3

상영정보 : 8월 3일(목) 오후 3시

빛-소리 장치에 대한 인상 IMPRESSIONS FOR A LIGHT AND SOUND MACHINE

컬렉티브 로스 인그라비도스 Colectivo los ingravidos

Mexico | 2016 | B&W | Stereo | 6min 43sec | HD

한 여성이 목청 높여 고통스럽고 끝나지 않는 연설을 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마음을 흔드는 언어와 집단 기억 속의 항구적 인상은 사람들을 더욱 압도한다. 결국 이 연설은 오래된 멕시코 영화의 셀룰로이드 필름이 찢겨 사라질 때 까지 지속된다.

피터 체르카스키의 걸작 《빛과 사운드 장치를 위한 입문》(2005)를 참조하여, 인그라비도스는 폭력 특히 멕시코에서 폭력의 재현을 비판하기 위해 질문을 던진다. 이 영화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하려는 듯하다. 나르코스가 그들의 폭력적 행위를 불법으로 녹화하여 광범위하게 퍼지게 되었을 때 멕시코에서는 어떻게 폭력이 재현되었는가? 우리가 재현의 영도를 가지게 되었을 때, 과연 어떻게 재현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 - 카를로스 에스콜라노

컬렉티브 로스 인그라비도스는 사회와 대중에 대한 지각적 통제를 달성하기 위한 시청각적 이데올로기를 효율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영화적 코포라티즘(cinematic corporatism)과 텔레비전 미학의 시청각적 문법을 해체할 필요성에서 출발했다.



■ EX-NOW 3

상영정보 : 8월 3일(목) 오후 3시

아부 아마르가 온다 Abu Ammar is Coming

나임 모하이에멘 Naem Mohaiemen

Bangladesh & Lebanon | 2016 | B&W, Color | Stereo | 6min | HD



1982년 매그넌의 사진작가가 찍은 사진은
여로모로 수수께끼로 남았다. 아랍어
신문들은 팔레스타인 해방 전선에 속했던
방글라데시 전사들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기억의 빈 공간으로 깊이 들어가면
침전물들로부터 제3세계 국제주의 운동의
어두운 면을 보게 된다.

«그 젊은 남자는» 연작은 1970년대의

급진주의 좌파 운동의 실패를 재조명한다. 주인공들은 종종 오인 받으며, 결국에는 문제가 되었던 국가들에게 비극적인 결과를 안기는 “의도치 않은 트로이의 목마”가 되었다. 이러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작가는 여전히 국제주의적인 좌파 연대의 잠재성으로부터 희망을 다시 읽어낸다. 이 연작의 1부 «연합적군»(2011)은 1977년 일본항공 472기 납치 사건의 협상 녹음테이프를 통해서 재구성된다. 2부 «압산의 긴 하루»(2014)은 젊은 역사가의 관점에서 마르크스주의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오인의 문제를 다룬다. 3부 «다카역 최후의 인간»에서는 거꾸로 1975년 방글라데시에서 지하 무장 마오주의 단체에 가담한 혐의로 구금되었던 네덜란드 기자 페터 쿠스터스의 행적을 추적한다. 이 작품 «아부 아마르가 온다»에서 작가는 매그넌 사진가였던 크리스 스틸-퍼킨스의 사진 “PLO 전사들”의 환영 속으로 들어간다.

불행히도 2015년에 세상을 뜬 페터 쿠스터스의 형상에서처럼 이 연작이 제기하는 질문들은 개인적인 형식을 띤다. 유토피아적 희망 너머에서, 그리고 특히 사회주의 이념 내부에서 역사와 경험의 무게에 맞서는 힘은 무엇인가? 이 끔찍한 시대에서 자신의 수많은 동지들과 달리 살아남게 된 사람들이 고독 속에서 지내면서 남기는 기억이란 무엇인가? 그들은 오늘날 자신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 그들은 반혁명 직전에 자유의 마지막 순간에 러시아 혁명을 기록했던 존 리드와 같은 존재인가? 생존자이자 목격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인류세의 한 가운데에서 사회주의 유토피아의 잔해를 살펴보는 인간은 어떤 사람인가?

나임 모하이에멘은 작가이자 시각예술가로 다카와 뉴욕에서 주로 작업을 하고 있다. 그는 짧은 글과 사진, 영화, 그리고 기록물들을 사용하여 국경선과 전쟁, 그리고 남아시아인 정체성을 탐구한다. 2006년부터 그는 1970년대 극좌 운동의 역사에 대한 작품을 만들고 있는데, 그 일부는 델리, 다카, 뉴욕, 런던 등지에서 상영되었다. 그의 글 중에는 «힙합의 미술람작 기원», «이들은 예술가인데 누가 신경이나 쓰는가» 등이 있다. 두 지역을 오가면서 작업을 하고 있는 작가는 또한 국내적으로는 권위주의적이며, 국제적으로는 이민자들의 한계지역에 위치한 방글라데시의 모순적 위치를 탐구하는 운동 프로젝트를 조직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결과물은 출판물과 블록의 형태로 발표되고 있다. 그는 또한 컬럼비아 대학 인류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 EX-NOW 3

상영정보 : 8월 3일(목) 오후 3시

운해(雲海) Sea of Clouds

조지 클락 George Clark

UK & Taiwan | 2016 | Color | Stereo | 16min | HD

«운해»는 이미지와 이미지를 통해 가능한 서사의 관계를 표현한다. 대만의 한 섬 주변에서 100피트짜리 16mm필름 총 6개의 롤로 촬영된 이 작품은 현대 미술작가인 천 지에 룬과의 인터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작품을 통해 영화와 풍경 그리고 주변부에서의 삶의 관계, 자기 조직화와 저항의 잠재적인 곳으로써 이러한 장소가 갖는 역사적 층위가 드러난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으로부터 듣는 것 사이의 관계와 번역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영화는 일제 강점기의 농부들이 대만에서 정치적 집회를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영화상영을 이용했던 전통에 대해 천이 말하는 것을 쫓아간다. 보고 있는 것과 듣고 있는 것, 말해진 것과 번역된 것 사이의 차이를 통해 이 작품은 정서적 감정과 역사적 메아리, 북경어와 영어 그리고 대만의 복잡한 역사와 현재 사이에서 윤곽을 만들고 때로는 불이행하며 삶과 풍경의 공명을 확장한다. 영화의 제목은 중국어인 雲海 yúnhǎi의 영어 번역이며, 대만에서는 높은 산에서 아래를 내려다보았을 때 구름과 바다에 의해 가려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 경관을 묘사할 때 쓰이는 말이다.

조지 클락은 예술가이자 큐레이터 작가이다. 세인트 마틴 예술대를 졸업하고 루크 파울러, 베아트리스 김슨과 같은 영국의 현대미술작가들과 여러 작품을 공동으로 제작하였다. 큐레이터이자 기획자로 그는 홍콩과 대만에 특별한 관심을 두고 전지구적으로 확장되는 필름과 비디오 실천의 역사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다. 테이트 모던에서 어시스턴트 큐레이터로 일했으며, 방콕 실험영화페스티벌 기획팀에 합류하기도 했다. 최근 음악가인 톰 찰린저와 함께 장편 영화 «디스턴트 에코»를 완성했다. 그가 만든 작품은 캐나다 이미지스 페스티벌, 런던영화페스티벌 등 여러 영화제페스티벌을 통해 소개되었다.



■ EX-NOW 3

상영정보 : 8월 3일(목) 오후 3시

로스(데)펜디엔테스 Los (De)pendientes

세바스티안 비드만 Sebastian Wiedemann

Argentina & Colombia | 2016 | B&W | Stereo | 24min | HD

1956년 부터 2006년 사이에 제작된 아르헨티나의 비판적이고 혁명적 영화를 추출하여, 로스(데)펜디엔테스는 영화 역사 구상의 진실보함을 보여준다. 어떠한 언어에도 기대지 않고, 과거에 관해 당대의 실제적 문제를 충실하게 시각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며, 현재에 관해서는 삶과 투쟁의 결정적인 이미지들이 어떤 빈곤한 조건에 처해있는가를 보여준다. 변화에 관해서는 가장 공정하고 진실한 영화사를 재구성하기 위해서 남겨진 과제들을 보여준다. 영원성의 관점에서 이 작품은 선명한 그림자를 늘어뜨린 독특한 분위기의 시이다. - 니콜 브레네즈

세바스티안 비드만은 콜롬비아 출신 실험영화작가로 브라질 상파울루에 거주하면서 활동하고 있다. 그의 작품은 아메리카와 유럽, 그리고 아시아의 여러 미술관과 영화페스티벌에서 상영된 바 있다. 그의 작품은 미국 뉴멕시코에서 발매된 실험영화 DVD 컬렉션에 포함되었으며, 2015년에 《로스(데)펜디엔테스》는 아트포럼 선정 올해의 영화 목록에 포함되기도 하였다. 그의 작품들은 브라질과 콜롬비아, 스페인에서 회고전 형식으로 전시된 바 있다. 그는 자신의 작업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나는 화가가 아니기 때문에 영화를 만든다. 나는 작곡가의 방식으로 영화를 만든다.”



■ EX-CHOICE 2

상영정보 : 8월 3일(목) 오후 5시 (85min)

힘의 우회 Detour de Force

레베카 바론 Rebecca Baron

Austria & USA | 2014 | B&W | Stereo | 29min | HD

이 작품은 시카고의 유명한 사환이었던 레티 세리오스의 염사 세계를 보여준다. 그는 1960년대 중반에 염력으로 수백 장의 폴라로이드 사진을 만들어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리오스의 시범을 찍은 16mm 기록 영화와 그의 능력을 신뢰한 덴버 출신의 정신의학자 아이젠버드 박사와의 대화 녹음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 작품은 전기라기보다는 민속지로서 세리오스가 유명세를 얻게 된 사회적이고 과학적인 환경을 보여주고 있다. 동시에, 당시의 이미지 녹화와 소리 녹음 기술이 세리오스의 염사가 유명해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 작품은 작가 자신의 관련 기록물과의 조우에 대한 기록이기도 하다. 이 작품의 음향은 에른스트 카렐, 카일 브루크만, 그리고 주세페 일라시가 담당하였으며 비엔나 오스트리아 영화 박물관과 공동으로 제작되었다.

레베카 바론은 역사의 구성 과정에 관한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스틸 사진과 무빙 이미지의 관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 그녀의 작품은 도큐멘타 12, 뉴욕 필름 페스티벌, 앤솔로지 필름 아카이브, 토론토 필름 페스티벌, 런던 필름 페스티벌, 휘트니 미술관 등지에서 상영되었다.

2010년에 오스트리아 영화 박물관은 그녀의 작품에 대한 회고전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 EX-CHOICE 2

상영정보 : 8월 3일(목) 오후 5시

반 레오의 사진들 Her + Him VAN LEO

아크람 자타리 Akram Zaatari

Lebanon | 2001 | B&W, Color | Mono | 32min | HD

이 작품은 어느 스튜디오 사진작가에 관한 것으로, 1940년대와 50년대의 사진을 과거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지 않으면서도 비판적인 관점에서 살펴본다. 작품은 전통적인 초상사진과 비디오를 사용하여 두 가지 매체 사이의 대화를 진행시킨다. 한편에는 흑백의 이미지가 있고, 다른 한편에는 전자적으로 색채가 가미되어 조작된 화면이 있다. 이 대화는 이집트에서 최근 50년간 벌어진 사회 도시 정치적 변화의 장면들을 보여주면서 예술 활동과 용어상의 변화에 대해 논평한다.

아크람 자타리는 레바논 베이루트에 거주하는 작가다. 그는 전후 맥락과 문서를 수집하고, 특히 TV를 통한 영토분쟁과 전쟁의 논리를 조정함으로써 그 나라의 전후 상황을 탐구한다. 또한 베이루트 소재의 아랍 이미지 재단의 공동창립자이며 가장 최근작으로는 레바논 사진작가 하셈 엘 마다니의 작품들에 관한 것이 있다.



■ EX-CHOICE 2

상영정보 : 8월 3일(목) 오후 5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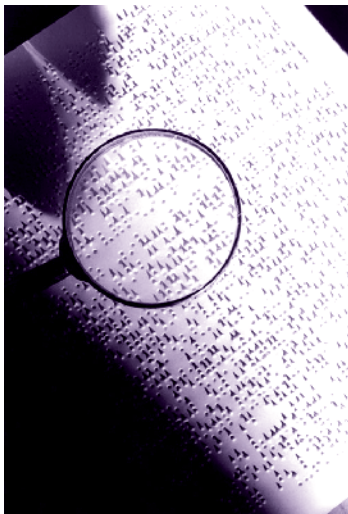
빛의 모조품 The Ape of Light (Le Singe de la lumière)

에릭 뵐로 Érik Bullot

France | 2002 | Color | Stereo | 22min 30sec | 16mm on HD



독일 예수회 수사 아타나시우스 키르히는 “소리는 빛의 모조품”이라고 말한다. 광학 법칙이 음향 세계로 옮겨질 수 있을까? 음향을 눈으로 볼 수 있을까? 이미지와 음향, 목소리 및 음악의 관계를 통해서 음향학에 관한 교과서나 논고들로부터 자유롭게 영감을 받은 일련의 행위들(노래하기, 듣기, 말하기, 말더듬기, 새소리를 흉내내기, 음향효과 만들기, 악기 연주하기 등)을 보여주고 이에 도전한다. 이 작품은 소리를 표기하는 다양한 방식들을 수집하면서 세 가지 언어를 충돌시킨다. 이들 언어는 각각 프랑스어, 19세기 말 엘렌 스미스가 무아지경 상태에서 말한 화성인의 언어, 그리고 조류학자 베크슈타인이 기록한 새소리다. 이 작품은 코드화된 언어와 상상 혹은 무의미의 언어라는 유령 사이의 전환의 게임을 통해서 간-기호적 번역의 문제를 다룬다.



에릭 뵐로는 아를의 국립사진학교와 파리의 고등영화학교(IDHEC)를 졸업하였고 다큐멘터리와 실험영화를 결합한 다수의 작품을 발표하였다. 그의 작품은 폰피두센터, MoMA, 뉴뮤지엄 등지에서 상영되었다. 전도 2, 영화의 출구 등의 책의 저자이며, 뉴욕주립대학교 버펄로의 방문 교수이기도 했다. 유럽 시각예술 대학의 “기록 및 현대예술” 대학원 과정을 이끌었으며, 현재는 부르주 국립고등미술원에서 교편을 잡고 있다

■ EX-CHOICE 5

상영정보 : 8월 5일(토) 오후 7시 30분 (60min)

일리노이 우화 The Illinois Parables

데보라 스트라트먼 Deborah Stratm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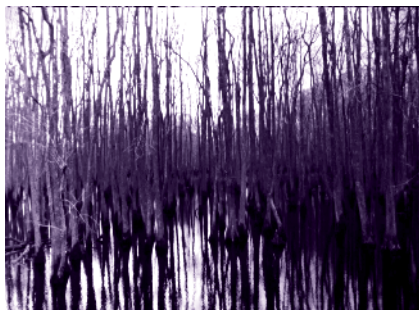
USA | 2016 | B&W, Color | Stereo | 1h | 16mm on HD

베레니스 레이노에 따르면 영화의 매혹은 쇼트들에 대한 엄격한 조합을 통해서 관객이 자신을 “비어있는 공간들”에 투사 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미국 중서부 지역의 우화들을 모아놓은 이 작품은 이데올로기와 국민정체성 형성에서 믿음이 담당한 역사적 역할에 대해 질문한다.

이 작품은 신앙과 힘, 기술, 그리고 집단 탈출을 주제로 이 지역의 소품들로 이루어진 실험 다큐멘터리다. 11편의 우화를 통해서 일리노이 주의 곳곳에서 일어난 정착과 제거, 기술적 돌파구, 폭력, 메시아주의, 저항의 역사들이 연결된다. ‘주’의 경계는 우리의 정체성이 확신과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형성되는 역사의 간편한 구조적 책략이다. 이 작품은 기술과 종교적 관념들 사이의 연관성을 암시하고 있다. 각각의 장소는 합리성과 초자연성의 경계가 사라지는 곳 들이다. 그러한 “희미한 장소들”에서 천상과 지상의 구분은 사라진다.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떠난 여행은 결국 신념과 기술적 발명을 통해 추방이 촉발된 장소들로 귀결된다.

이 작품은 작가의 기존 작품들의 연장선상에서 자연과 기록영화, 그리고 보이스 오버 등을 활용하여 미국을 세운 임차인들을 의문시한다

데보라 스트라트먼은 시카고에 거주하는 영화작가이며 풍경과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 그녀의 작품들 대부분은 자연 환경과 이를 통제하려는 인간의 권력 투쟁 사이의 관계를 지시하고 있다. 최근의 작품들에서 그녀는 자유와 팽창주의, 감시, 음향전쟁, 공적 발화, 유령, 싱크홀, 공중부양, 곤충, 혜성, 신앙 등을 다루고 있다. 그녀의 작품들은 뉴욕 MoMA, 폰피두센터, 휘트니 비엔날레 등지에서 전시되었으며, 선댄스, 오버하우젠, 앤아버, 로테르담 등지에서 상영되었다. 그녀는 현재 일리노이 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있다.



■ EX-CHOICE 6

상영정보 : 8월 3일(목) 오후 8시 (90min)

피플 파워 폭탄선언: 베트남 장미의 일기 People Power Bombshell: The Diary of Vietnam Rose

존 토레스 John Torres

Philippines | 2016 | Color, B&W | Stereo | 89min | HD

이 작품은 단순히 현재에 켄트가 되었을 수도 있는 영화의 이면을 보여주는 영상이 아니며, 형식적인 면에서도 단순 다큐멘터리가 아니다. 감독은 디지털 영상이 막강한 사이키델릭한 감각을 되살려내는 시각적 미학을 제안하는 하나의 송가로서 기존의 영상에 새로 쓴 대사와 우아한 일화를 덧붙여 작품을 완성했다.

-알리 로페즈

존 토레스는 ‘필리핀 영화의 구세주’로 불린 켈소 아드벤토 카스티요(1943-2012)에 의해 1980년대에 촬영했지만, 미완인 채로 남은 35mm 필름을 부식상태에서 복원하고 그것에 새로운 장면과 인터뷰를 추가하여 영화 속에서 고통 받는 여배우의 초상을 완성하였다. 이 여배우의 운명은 영화 자체의 제작 과정뿐만 아니라 민족의 운명과도 공명하고 있다.

원래 영화의 감독인 카스티요는 60편 이상의 매우 독창적이고 논쟁적인 영화를 만들었다. 그는 스릴러, 액션, 공포 영화를 제작하였으며 1970년대에는 이른바 ‘불바 필름’이라 불리는 작품을 통해 자신의 도덕적 서사를 갖춘 선정적인 영화 장르를 확립시켰다. 1980년대 그는 당시 19세였던 여배우 리즈 알린도간이 출연하는 장편 영화를 촬영했지만, 결국 완성하지 못했다. 토레스는 30년이 넘게 지나 재발견된 20여개의 필름 롤을 사용해 다큐멘터리 작품으로 재탄생시켰다. 이 작품은 파운드 푸티지와 오버더빙의 방법을 사용하여 신비로운 전개를 보여주는 메이킹 필름이다. 필리핀 영화의 선구자에게, 그리고 동시에 그의 영화적 상상력에 바치는 존 토레스만의 독특한 오마주다.



■ EX-Retro_카나이 카츠 Kanai Katsu 金井勝

상영정보 : 8월 4일(금) 오후 5시 (52min)

굿-바이 Good-bye

카나이 카츠 Kanai Katsu

Japan & Korea / 1971 / B&W, Color / 52min / 16mm on HD

이 작품은 1970년에 촬영되었는데, 그 해에는 일본적군파가 일본항공기를 북한으로 납치한 요도호 사건이 있었다. 당시 일본과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깝고도 먼” 관계로 묘사되었다. 물론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당연히 일본의 장기간의 식민지 지배를 쉽게 용서할 수 없었고, 일본인들은 그들의 이웃을 무시하면서, 유럽과 미국이 가진 권력을 부러워하는데 만족하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의 조상은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왔다. 일본에는 고구려 유민들이 정착한 마을이 있으며 그 마을의 이름은 고구려라는 나라의 이름과 유사성을 간직하고 있다. 나의 성 카나이도 이러한 연관성을 보존하고 있다. 그것은 금속장인이라는 의미다. 그리고 한반도에서 건너온 초기 유민들은 정교한 금속세공술을 보유하고 있었다. 아마도 나의 조상도 이 금속세공술사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고 나는 이 작품을 만들었다. 주인공은 실어증을 겪고 있는 소년인데, “고구려의 미”를 발견하고 자신의 뿌리를 추적하게 된다. 영화의 중반 1970년 한국의 계엄령 때문에 이야기는 긴장감 있게 흘러가지만, 거기에서 끝나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는 이 작품을 독특한 로드 무비로 만든다.

1936년에 태어난 카나이 카츠는 일본의 다른 여러 독립영화의 스타들과 견줄만한 감독이다. 하지만 그의 작품들은 언제나 진정한 독립성을 추구하고 상쇄적인 접근법을 시도함으로써 작품들이 잘 알려지지 않게 되었다. 그의 '미소짓는 은하계 삼부작'은 <무인열도>, <Good-bye>, <왕국>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작품들은 그를 일본 독립 영화의 선구자 중 한 사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의 최근 다큐멘터리 작품 <수퍼 다큐멘터리: 아방가르드 센쥬수>(2003)는 제50회 오버하우젠 국제단편영화제 국제비평가 상을 수상했다. 또한 제53회 오버하우젠 영화제에서 특별 회고전 작가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그는 현재 도쿄조형대학과 이미지포럼 무빙이미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다.



■ Indi-Visual _ 린다 라이 Linda LAI

상영정보 : 8월 5일(토) 오후 2시 (70min)

린다 추-한 라이는 뉴욕대학에서 영화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는 홍콩시립대학교 크리에이티브 미디어 학부 조교수로 있다. 그녀는 홍콩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작가, 큐레이터들이 모인 단체인 Writing Machine Collective 미디어그룹을 설립하여 활동하기도 했다. 그녀의 작품은 여성주의적 감수성에 근거를 두고 비판 이론, 영화이론, 시각 인류학 등 학제간 방법론을 다양하게 시도하면서 언어와 서서상에 대한 관심을 다양하게 표출해왔다. 최근에는 초기의 사적 에세이, 도시 연구를 넘어서 미디어 테크놀로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다양한 설치를 통해 영화 역사-이미지에 관한 작품으로 그녀의 관심을 넓혀나가고 있다. 그녀의 작품은 정치적 언어에 대한 감수성을 기반으로 미시적이고 메타적 서사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끊임없이 해왔다. 그녀의 작품은 오버하우젠 단편영화제를 비롯하여 베를린, 비엔나, 파리, 함부르크, 서울 등 다양한 도시의 단편영화제에서 선보였으며 최근에는 중국, 대만, 홍콩의 여러 뮤지엄과 미술관에서 영상설치 작품을 선보였다.

바-장소 ■ 다른 공간 Non Place ■ Other Space

린다 라이 Linda LAI

2009 | Color | Stereo | 13min 45sec | HD

이 작품은 여러 해 동안 작가가 수행한 시각 민족지학 작업에 토대를 두고 있다. 이 작업에서 작가는 도시를 걸어다니면서 사적인 비디오 다이어리를 만들었다. 이 작품은 1991년부터 2008년까지의 홍콩과 마카오의 도시 공간의 파편들을 결합한 것으로 단일한 틀로 구성된 담론 안에서의 다양한 시공간의 가능성에 대한 주장을 담고 있다. 이 작품은 사라짐과 등장, 보이는 것과 가려진 것 사이의 상태들을 보여주려고 시도한다. “걸어서 통과한다”는 것은 위태로운 경험이다. 한 순간 작가 자신은 보게 되고 비디오 카메라는 그를 대신해 기록한다. 다음 순간 카메라는 보면서 간직하게 되고 그는 발견하게 된다. 자동기계가 앞장선다. 작가가 겨우 감지하는 가상의 음향과 오랫동안 망각하고 있었던 목소리의 파편들은 모두 뒤섞여서 비장소의 장소없는 다른 공간을 이루게 된다. 장소들, 그리고 사라짐의 경험적 순간들은 기념비도 아니고 환상도 아닌 중간의 상태로서 귀환한다.



■ Indi-Visual _ 린다 라이 Linda LA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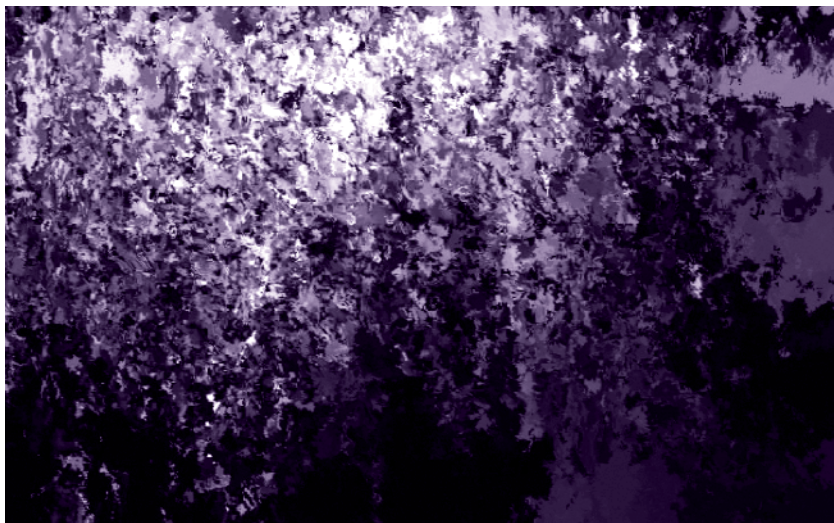
상영정보 : 8월 5일(토) 오후 2시

보이는 목소리, 들리는 이미지 Voice Seen, Images Heard

린다 라이 Linda LAI

2009 | B&W, Color | Stereo | 28min 9sec | SD

그녀는 역사가이자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로서 어떤 역사가가 태어나고 자란 도시인 홍콩의 역사를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자기 대화를 시작한다. 시각과 음향의 이질적인 광산을 파내려가면서 그녀는 시각을 우세한 지식의 형태로 간주하는 시각적 인식론의 힘과 한계를 재검토한다. 그녀는 충분치 않은데다가 동질적인 시각 자료들을 통해 자신의 길을 힘겹게 뚫어나가면서 홍콩이라는 도시가 스스로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혹은 부동산 시장 덕분에 자신의 건축학적 통일성을 보존하기 위한 투쟁의 불안정한 역사를 지니고 있다고 상상하게 된다. 그 결과 그녀는 과거로부터의 상실된 표면과 어두운 단편으로 구성된 시각 에세이를 재구축하게 된다. 그녀의 성찰은 시각과 소리 각각의 잠재적 의미를 개방한 채로 남겨둔다.



■ Indi-Visual _ 린다 라이 Linda LAI

상영정보 : 8월 5일(토) 오후 2시

도어 게임, 윈도우 프레임: 유사 드라마 Door Games Window Frames: Near Drama

린다 라이 Linda LAI

2012 | B&W | Stereo | 11min 35sec | HD

이 작품은 원래 196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홍콩 스릴러 영화와 멜로드라마에서 추출한 500여편의 시퀀스 데이터베이스를 기반해 개방된 형태의 생성적인 3채널 화면으로 구성되어 설치된 것이다. 이 자동 드라마는 관객으로 하여금 홍콩 스릴러와 멜로드라마의 매너리즘과 천편일률적인 구조를 살펴보게 만드는데, 이러한 장면이 가진 영화적 핵심적 특징은 문을 열고 닫음으로써 장면을 시작하고 멜로드라마에서 감정의 변화를 나타내기 위해 창문을 이용하는 방식에 있다. 이 작품에서 작가는 문과 창문의 움직임을 글자 그대로의 의미에서 독특한 프로펠러로 만든다.



■ Indi-Visual _ 린다 라이 Linda LAI

상영정보 : 8월 5일(토) 오후 2시

미시 서사: 시각적 시 Micro Narratives: a Visual Poem

린다 라이 Linda LAI

2017 | B&W, Color | Stereo | 14min 49sec | HD

이 작품은 작가 자신의 개인적인 시청각 아카이브(1999-2017)를 활용한 시각적인 시이자 몽타주의 게임인데, 이 아카이브에는 비디오 다이어리, 스틸 사진, 시, 그리고 자동기술적 글쓰기, 낙서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7 곳의 도시(마카오, 캠브리지, 런던, 라스팔마스, 싱가포르, 상하이, 빌바오)와 홍콩 내의 여러 장소들에 관한 것이다. 또한 1930년대 홍콩의 모습을 담은 파운드 푸티지도 사용되었다. 간격은 각각의 단편들과 중간 영역의 개념적 공간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미시 서사”는 방대한 지형학과 기념비적 역사에 반대되는 미시적 과정의 삶의 세계와 관계된다. 거대 담론과, 계산된 이야기 구조는 존재하지 않는다. 내게 있어 몽타주는 우리들의 일상성에 담지된 것들에 반하는 수행적 놀이와도 같은 것이다. 이 작품은 파편적인 시청각적 기록들, 다양한 표현적-개념적 양상, 언어적인 것과 시청각적인 것의 충돌 그리고 보편적 위계질서를 넘어 인간과 사물이 동시적 행위자로 수행하는 네트워크의 다른 차원이 뒤 섞이는 앙상블라주의 공간이다.



■ IIndi-Visual_샌디 덩 Sandy Ding

상영정보 : 8월 4일(금) 오후 8시 (49min)

샌디 덩은 베이징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실험영화 감독이다. 2007년 캘리포니아 예술대학에서 영화제작을 공부하였으며 귀국 후 2008년 부터 현재까지 베이징 중앙미술학원(CAFA)에 재직하고 있다. 그는 프로젝션과 사운드에 제의적 과정을 결합하는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심리적 작용에 관한 여러 편의 작품을 발표했다. 그의 작품은 추상 혹은 강렬한 상징적 요소를 통해 신비로움에 접근하는 에너지의 패턴이라 할 수 있다. 그는 비-전통적 갤러리 프로젝션, 설치와 라이브 노이즈 음악을 실험영화로 확장하는 한편 극장 프로젝션의 라이브 퍼포먼스에 함께 관심을 갖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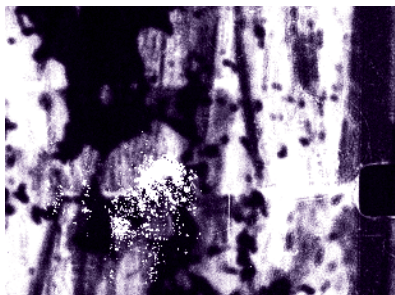
<워터 스펠 Water Spell>(2007), <프리즘 Prisms>(2011), <닫힌 꿈 Dream Enclosure>(2011-2014)과 같은 그의 일련의 작품을 통해, 샌디 덩은 영화 감독으로서 자신을 주술사로 생각하고 관객을 다른 존재 상태로 이동시키려는, 오직 주술적 힘을 통해서만 종종 접촉이 가능한 것에 대한 열망을 표현해왔다. 단호한 상상의 사용으로 <흙 얼음 꽃 아래 흐르는 피가 내뿜는 전파 The Radio Wave of Blood Beneath the Dirt Ice and Flowers>(2006)의 불타는 남자와 <워터 스펠>에서의 주술로 부터 <프리즘>의 네팔 사원에 이르기 까지 샌디 덩의 이미지는 그것이 실재이건 상상된 것이든 또한 숨겨진 차원의 지식을 떠들어 받치는 더욱 특수한 틀 안에 자리하게 된다. (양 치아오, 마법과 놀이로부터-샌디 덩을 이해하기)

흙 얼음 꽃 아래 흐르는 피가 내뿜는 전파 The Radio Wave of Blood Beneath the Dirt Ice and Flowers

샌디 덩 Sandy Ding

2006 | B&W | Silent | 10min | 35mm on HD

이 작품은 사진화학적 반응이 주된 모티브가 되는 연금술적 과정을 중심에 둔 작품이다. 같은 구조를 다른 형태로 반복하는 행위는 어떤 에너지에 대한 숭배가 되고 얼음과 먼지, 액체 꽃과 인간의 피의 반짝이는 형상은 이 단순한 시와 같은 작품의 핵심적 언어가 된다. 이것은 빛의 화학과 촉매에 다를 아니다.



■ IIndi-Visual_샌디 덩 Sandy Ding

상영정보 : 8월 4일(금) 오후 8시

닫힌 꿈 Dream Enclosure

샌디 덩 Sandy Ding

2011 - 2014 | B&W | Stereo | 18min | HD

이 작품은 내가 만들었던 «노이즈 필름» 연작으로 시작되었다. 2008년 중국에 돌아온 이후, 난 사운드 작업을 시작했다. 처음엔 다크 사이트랜스 음악 디제이로부터 출발해, 나 자신만의 사운드를 만들기 시작했다. 베이징에 있는 다른 친구들과 함께 “리퀴드 팰리스”라는 노이즈 밴드를 결성했다. 한달에 1~2회 우리는 즉흥적으로 노이즈 음악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결국 이러한 활동은 2012년 이후 내가 만드는 영화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나는 많은 연구를 통해서, 노이즈 예술에서 받은 영감을 영화제작에 사용하기 시작했다. 2012년부터 4년 동안 완성한 «잠들지 않은 밤»(Night Awake)이라는 장편 실험영화는 노이즈 음악을 표현하기 위한 나의 헌신적 노력의 결과물이다. 이 영화 역시 이러한 노이즈 영화의 한 작품이다.

엄청난 속도감의 시선이 분열된 자아의 순수성을 파고들고, 과거의 현실과 뒤섞여 영원히 노이즈의 선 속으로 녹아들면서 깊은 숲 속의 동굴 속으로 들어서고 밖으로 나아가고.... 기억이 뒤섞이고, 반복된 회상의 파편이 한데 얹히고 투쟁한다. 꿈 속의 또 다른 깊은 꿈에 대해 말하려는 듯, 영화 속 인물은 관객을 반영하고 사막에서 숲으로 이동하는 동안 우리를 이끄는 영화의 시각은 단순히 갇힌 꿈 속의 여행일 뿐만 아니라 프레임과 장면 사이에 붙들린 의미와 권력을 해방시키려는 노력이기도 하다.



■ IIndi-Visual_샌디 딩 Sandy D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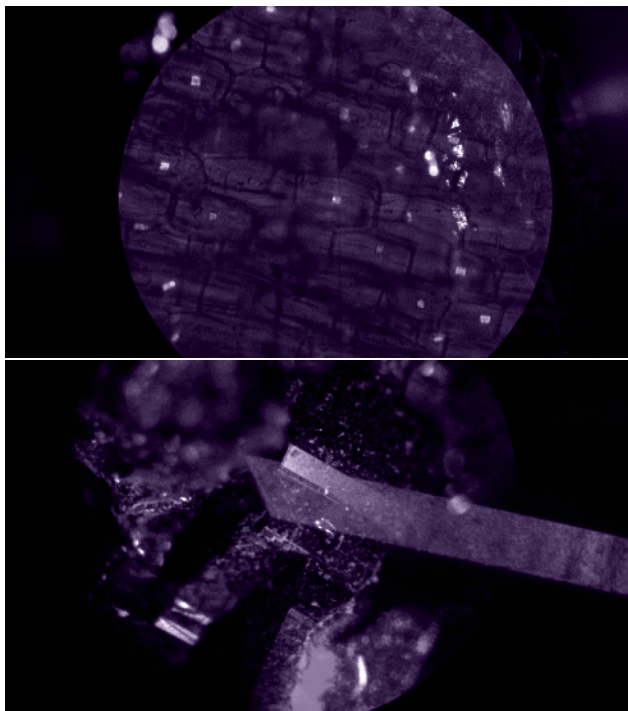
상영정보 : 8월 4일(금) 오후 8시

프리즘 Prisms

샌디 딩 Sandy Ding

2011 | Color | Optical | 20min | 16mm

다양한 색채로 가득한 이 추상적 작품은 어떤면에서는 구조와 공간에 관한 것이다. 이는 명백히 내가 지금까지 만들어 온 대부분의 작품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기도 하다. 안에서 바라볼 땐 거기엔 분명히 미묘하면서도 접근할 수 없는 공간이 있다. 그리고 그것은 시간의 신전 근처에서 자리한다. 신전은 어둠에서 빛나고, 아무도 없으며 미동도 하지 않는다. 프리즘 밖으로 흘러 나오는 빛 조각의 움직임에 따른 공간의 분위기가 작품 속에 드러난다.



디지털 브레이크: 대만 무빙이미지에 대한 새로운 관점 Digital Break: New Perspectives on Taiwanese Moving Image

Curated by

왕 윈-츠 WANG Wen-chi

대만 프로그램의 주제는 “디지털 브레이크”이다. 이 프로그램은 동시대적 시간과 공간, 지각, 기억, 하이브리드 텍스트를 통한 디지털 환경속의 반영적 담론을 통한 영원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 위해 극도로 미디어에 노출된 시청자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한 프로젝트라 할 수 있다. 7명의 대만 작가는 모두 디지털 세대에 성장했으며, 그들의 작품은 필름과 비디오 아트 경계를 넘어서 대화를 만들어내면서 디지털 테크놀로지와 관련된 동시대적 현상에 대한 응답으로 읽힐 수 있다. 그들의 작품을 통해, 작가들은 우리를 둘러싼 세상에 대한 우리의 감정과 우리가 경험하는 순간과 같은 유기적 세계와 우리 자신의 친밀감을 분석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 Asia Forum 1 _대만 Taiwan

상영정보 : 8월 5일(토) 오후 4시

원거리 작용 Action at a Distance

천 인-취 CHEN Yin-Ju

2016 | Color | Stereo | 9min 16sec | HD

«원거리 작용»은 작가가 국가폭력과 정부, 신체에 관해 만든 연작 중 3번째 작품이다. 이전 작품인 «As Above, So Below»(2013-2014)와 «Liquidation Maps»(2014)에서처럼 3채널로 구성된 비디오 설치의 국가폭력의 사례와 외과수술을 연결시키는 형이상학적 연결고리를 확장하고 간추린다. 의료 절차에 관한 파운드 푸티지, 양자 역학에 관한 교육 영화와 국가 폭력과 시민 사이에 벌어진 폭력적 대결의 새로운 푸티지 등을 사용하여 «원거리 작용»은 대응의 원리와 양자 뒤얽힘에 대한 철학적 결과를 탐색하면서 대우주적인 것과 소우주적인 것 사이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 아인슈타인은 양자가 뒤얽히는 것을 “원거리 상에서의 유령적인 동작”이라 불렀다. 원거리 작용과 그것의 이전 상황의 절차적인 반복은 궁극적으로는 응집되고 뒤섞인 우주를 기술하는데, 과학과 유사-과학은 인간의 삶을 이해하는 두 개의 상호보완적인 길일 뿐이다.

천 인-취의 주된 매체는 비디오이지만 사진, 설치, 드로잉도 그녀의 작품에 포함된다. 지난 몇 년 동안 그녀는 인간 사회의 권력의 기능, 국가주의, 인종주의, 전체주의, 집단적 사유 혹은 집단적 (무)의식에 집중해왔다. 그녀의 최근 작품 역시 우주와 인간 행동 사이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 그녀는 많은 국제적 전시와 영화제에 참여했다. 그녀의 설치와 영상 작품들은 대표적으로 2016년 리버풀 비엔날레와 시드니 비엔날레, 2014년 상하이 비엔날레, 2012년 타이페이 비엔날레 등에 소개되었으며 로테르담 영화제, EMAF, 암스테르담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레이나

소피아 등에 참가했다. 그녀는 2010~2011년 네덜란드 라익스아카데미 레지던시의 입주작가였으며, 현재 타이페이에서 작품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 Asia Forum 1 _대만 Taiw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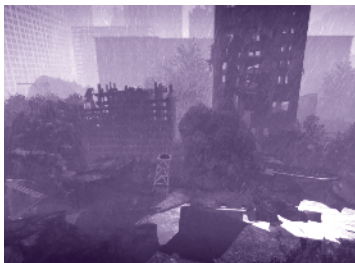
상영정보 : 8월 5일(토) 오후 4시

안개 속 - 버려진 도시 In the Fog – Abandoned City

판 쑤-밍 FAN Chih-Ming

2016 | Color | Stereo | 7min 3sec | HD

작가는 전쟁 이후 버려진 지역 혹은 사람들에게 잊혀진 현대적 고립지대로도 볼 수 있는 곳을 게임 엔진 시스템을 통해 상상과 가상의 전장 후의 장면으로 표현한다. 그곳은 너무나 빛바랜 모습으로 더 이상 사람도 살지 않는 고립된 곳으로 보인다.



판 쑤-밍은 오디오-비주얼 프로젝트와 비디오 설치 분야에서 활동해왔다. 그의 작품은 여러 오디오-비주얼 페스티벌에 소개되었으며, 제5회 타이페이 디지털 아트페스티벌에서 사운드 아트 대상을 수상했다.

침식의 짧은 역사 A Short History of Decay(解體概要)

린 스-지에 LIN Shih-Chieh

2014 | Color | Stereo | 5min 45sec | HD

역사는 선형적 기표와 상징으로 이뤄진 해석이다. 기표를 탈맥락화하면, 이미지는 인과관계의 환영에서 자유로워진다. 이 작품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대만에서 미군의 설립과 식민지 역사를 소개하는 1970년대 미군에 의해 제작된 대만 프로파간다 영화를 샘플링 한 것이다.



린 스-지에에는 타이페이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비디오 아티스트이자 영화감독이다. 그는 캘리포니아 예술대학에서 영화를 공부하였으며, 작품을 통해 주로 미디어와 사적기억 그리고 포스트-콜로니얼리즘 맥락에서 역사의 상호연관성을 주로 다뤘었다. 그의 최근 작품인 《침식의 짧은 역사 A Short History of Decay》는 2015년 대만의 금마장 영화제에서 최고 실험영화 부문과 음악상을 수상했다. 그는 현재 대만에 관한 조지 살마나자르의 문학적 민족지학에 영감을 받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 Asia Forum 1 _대만 Taiwan

상영정보 : 8월 5일(토) 오후 4시

내가 당신과 함께 나이 들어갈 때 When I'm Getting Older With You

니우 쥘-치앙 NIU Jun-Qiang

2009 | Color | Stereo | 5min 1sec | HD

이 작품은 단일한 뉴스 이미지를 렌즈 뒤에 숨어 있는 허구적 감정과 숨겨진 사건을 연장하면서, 이를 수평적 서사로 확장하고 발전시킨다. 한편으로 매스 미디어와 실제 사이의 차이를 대비시켜 우리가 살고 있는 피할 수 없는 환경과 즉각적인 라이브-뉴스를 요구하는 우리 자신의 상황에 대해 환기 시킨다. 자세 자체가 사건의 원인이 되면서 의도적으로 확대된 감정적 정교함을 통해 그녀는 주변부에 혼잡스런 뉴스 정보 속에서 쉽게 눈에 띈다. 그러한 불완전하고 불균형적인 응시로부터 그녀는 단순히 실제 삶 속에서 관람객의 한 전형일 뿐만 아니라 뉴스가 만들어 내는 감정의 투사체이기도 하다. 라이브-타임은 이 순간이 아니라, 스크린의 연속적 예언이 찰나의 순간이 되어버린 때이다. 그 순간의 응시를 위해 우리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단위 작업의 개념 속에 존재한다.

니우 쥘-치앙은 1983년 핀통에서 태어났다. 그는 타이베이 국립예술대학 뉴미디어 아트학 석사과정을 졸업하였다. 그의 작품들은 주로 비디오와 실험영화, 사진, 믹스 미디어 설치 분야에 걸쳐있다. 그의 최근 작품들 대부분은 일상적 경험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것이다. 그는 다양한 사람을 자신의 작품에 참여시키고 그들의 과거 경험을 통한 이야기로부터 하나의 통일되고 결합된 경험을 만들어낸다. 이 과정에서 그는 한 번도 직접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 사이의 놀라운 관계를 발견해낸다. 그는 물질주의를 거부하면서 인간의 생애에 지속적이고 변화하지 않는 어떤 것을 탐색한다.



■ Asia Forum 1 _대만 Taiwan

상영정보 : 8월 5일(토) 오후 4시

마이크 테스트 : 황 구어-진에게 보내는 편지 Microphone Test: A Letter to Huang Guo-Jun

쉬 츠어-위 HSU Che-Yu

2015 | Color | Stereo | 2min 18sec | HD

마이크 테스트 연작은 작가인 Huang Guo-Jun의 동명의 작품에서 따온 것이다. 자살하기 두 달 전에 황은 “To Mother”라는 제목의 서간문체의 짧은 글을 남겼는데, 이 글에서 그는 자신이 자살을 하려한다는 것을 어머니에게 알렸다. 그리고 그는 자살을 하면서 유서를 남기지 않았다. 이 작품의 허구적 측면은 삶의 사실주의적 측면과 대조를 이룬다. 쉬의 작품은 언제나 허구와 사실 사이에 구별불가능한 부분에 초점을 맞춘다.

쉬 츠어-위는 1985년 타이페이에서 태어났다. 그는 타이완 국립예술대학교에서 조소를 전공하였다.

그는 주로 비디오와 설치 작업을 해오고 있다. 그의 작품으로는 《마이크 테스트 Microphone Test》, 《친밀한 타자성 Familiar Otherness》, 《동북아시아의 예술 Art Across Northeast Asia》, 《언어는 바이러스다 Language is a Virus》 등이 있다. 그는 제1회 가오슝 미술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타이완 국립미술관이 주최한 국립미술전에서 뉴미디어 아트 부문 금메달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 Asia Forum 1 _대만 Taiwan

상영정보 : 8월 5일(토) 오후 4시

스타게이징 Stargazing

우 쑤-안 WU Tzu-an

2017 | Color | Stereo | 2min 48sec | 16mm on HD

뉴질랜드에 도착한 후, 작가는 매일 밤 날씨와 관계 없이 반짝이는 별을 촬영 사진으로 남겨두고 싶었다. 밤하늘의 사진은 하나의 일기가 되었다. 별이 반짝이는 하늘을 보며 했던 작가의 생각과 영감 그리고 사유의 시간은 매일매일 의례적 기록으로 마침내 영화가 되었다.

우 쑤-안은 실험영화작가이자 비디오 아트 작가다. 그는 이질적인 이미지와 음향, 그리고 텍스트를 가지고 서사와 자아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작품을 만든다. 그는 또한 영상 기록 매체 중에서도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교차가능성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 그는 국립 청화대학 학부에서 젠더 및 문화연구를 전공하였고, 뉴욕 뉴스쿨에서 미디어학 석사과정을 졸업하였다. 현재 그는 뉴욕 브루클린에 거주하고 있다. 그의 작품들을 런던 LGBT 영화제, 로테르담 국제영화제 등지에서 상영된 바 있다. 그는 «The Other Cinema»의 멤버이며, 대항문화운동 잡지인 «後母-Post-Motherism»의 공동설립자이기도 하다.



■ Asia Forum 1 _대만 Taiwan

상영정보 : 8월 5일(토) 오후 4시

사적 컬렉션 A Private Collection

우 츠-위 WU Chi-Yu

2016 | Color | Stereo | 13min 33sec | HD

두 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불법 복제 DVD에 관해 이야기를 나눈다. 그들의 영화에 대한 생각은 고향인 미얀마에서 어릴 적 경험했던 시절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일이 없는 날이면 항상 그들은 사원 주변에 있는 시장에서 DVD를 사서 영화를 보곤 했다. 그들에게 영화를 보는 일은 삶과 무빙 이미지 사이의 영향관계를 이해하고 세계의 실재를 익혀나가는데 중요한 습관이 되었다.

우 츠-위는 타이페이에 거주 중인 작가다. 그는 작가 집단인 후싱옌 스튜디오(Fuxinghen Studio)의 멤버다. 그는 비디오를 비롯하여 다양한 장르의 협업 프로젝트를 작업해 왔고, 여기에는 비디오 설치와 렉처 퍼포먼스도 포함된다. 그의 작업은 구술사와 지방의 소문을 기록하고 재현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작가는 서사의 해체와 재구성 과정을 통해서 탈근대 문명을 역사와 공동체와 다시 연결시키고자 한다.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그는 암스테르담 라익스아카데미 입주작가였고, 2013년에는 금천예술공장에 머물기도 하였다.



상영시간표 time table @ 예술공간 돈키호테, 순천

상영시간	8. 3 (목)	8. 4 (금)	상영시간	8. 5 (토)
15:00	국제 경쟁 EX-Now 3 HD/77min/15세	국제 경쟁 EX-Now 1 HD/95min/15세	14:00	인디 비주얼 Indi-Visual 린다 라이 Linda LAI_홍콩 <비장소 ▪ 다른 공간> 외 3편 HD/70min/15세
17:00	기획부분 EX-Choice 2 <힘의 우회>, <반 레오의 사진들>, <빛의 모조품> 레베카 바론 Rebecca Baron, 아크람 자타리 Akram Zaatari, 에릭 벌로 Érik Bullot HD/85min/15세	회고전 EX-Retro 카나이 카츠 Kanai Katsu_일본 <굿-바이> HD/52min/15세	16:00	아시아 포럼 Asia Forum 1_대만 디지털 브레이크 : 대만 무빙이미지에 대한 새로운 관점 Curated by 왕 윈-츠 WANG Wen-chi HD/74min/15세
20:00	기획부분 EX-Choice 6 <피플 파워 폭탄선언: 베트남 장미의 일기> 존 토레스 John Torres HD/89min/15세	인디 비주얼 Indi-Visual 샌디 딩 Sandy Ding_중국 <달린 꿈> 외 2편 HD/49min/15세	19:30	기획부분 EX-Choice 5 <일리노이의 우회> 데보라 스트래트먼 Deborah Stratman HD/60min/15세

* 전체 상영 무료/15세 관람가

information

지역협력상영 Local Community Partners

예술공간 돈키호테, 순천 artspace Donquixote, Suncheon

모듬극장, 부산 Conertheater, Busan

EXIS www.ex-is.org

예술공간 돈키호테 www.art8013.net

찾아오시는 길

순천 문화의 거리 내

주소: 순천시 금곡길33(2층)

061-754-8013

donquixote8013@gmail.com

